

제주 현대건축의 지역성 구현 방식에 관한 연구

김형준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A Study on the Realization Method of Locality about Jeju Contemporary Architecture

Hyoung-Jun Kim

Department of Architec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제주 건축에 있어서 지역성을 탐구하는 일련의 연구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저명 건축가가 아닌 국내 건축가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제주 건축의 지역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개념적 측면이 아니라 현상적 측면에서의 지역성에 집중함으로써 현재적 상황에서의 지역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연구 분석 결과,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제주의 지역성은 첫째, 해석학적 지역성으로서 제주 전통 건축의 재해석을 통한 건축적 적용이며, 둘째, 현상학적 지역성으로 제주가 가진 독특한 자연경관이나 풍경을 자신의 건축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지역성을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되었다. 해석학적 지역성의 특징은 제주 전통 민가를 재해석하여 자신의 건축에 적용하는 경우로, 주로 공간구성이나 배치를 통해 민가의 요소를 건축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지역성의 특징은 제주의 경관과 풍경을 존중하여 이를 건축으로 구현하는 방식이었으며, 이 경우 경관이나 풍경요소를 그대로 건축에 차용하거나, 건축물이 제주 고유의 경관이나 풍경을 존중하여 이를 건축적으로 담아내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one of a series of studies exploring the locality of Jeju architecture, in which we focused on the works of domestic architects, rather than those of famous foreign architects, as well as on the locality of the phenomenological aspect rather than the conceptual one, so as to reveal the locality in the present situa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architects had the following viewpoints with regard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Jeju: first, the hermeneutic aspect of the locality is the architectural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Jeju architecture; second, the phenomenal aspect of the locality involves respect for the landscape and natural scenery of Jeju. There are two main ways in which architects can realize the locality that they envisage. The hermeneutic representation of Jeju would be as a locality consisting of traditional houses. The architects mainly wanted to implement the elements of the private houses through the space layout. The phenomenal representation of the locality would require them to respect the landscape and scenery of Jeju and to implement them in its architecture. This was the case if the landscape or landscape elements were directly borrowed from the buildings, or if the buildings respect the scenery or landscape of Jeju.

Keywords : Contemporary Architecture, Hermeneutic Locality, Jeju, Locality, Phenomenal Locality, Realization Method

1. 서론

본 연구는 제주 건축에 있어서 지역성을 탐구하는 일련의 연구 중 하나이다. 제주 건축의 지역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주 건축의 지역성은 피상적 측면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oung-Jun Kim(Jeju National Univ.)

Tel: +82-64-754-3706 email: kimhj@jejunu.ac.kr

Received February 28, 2018

Accepted March 8, 2018

Accepted March 9, 2018

Published March 31, 2018

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일련의 연구 중 앞서 다루었던 지역성의 대상은 이타미 준과 안도 다다오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건축가가 아니라 국내 건축가들이 다룬 제주 현대건축의 지역성 구현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가들이 지역성을 구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국내 건축가가 제주에 완성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제주 건축의 지역성을 다룸으로써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보는 제주 지역성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고, 향후 축조될 제주 건축이 어떻게 지역성에 기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제주의 지역 건축가 뿐만 아니라 국내 건축가들이 제주에 남긴 건축물은 너무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저널 중 A&HCI 저널인 공간(SPACE)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실린 제주의 건축작품 18개, 제주의 건축3단체인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 공동 주관하여 시상하는 제주건축문화대상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수상작 79개, 지역 건축 계간지 시간의 2014년 가을호에 도내의 건축가의 지역성 논의로 함께 수록된 건축물 21개 등 총 118개 건축물을 1차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건축물 중 지역성에 대한 논의가 일부라도 있는 작품을 선별하였다. 공간 저널에서 7개, 제주건축문화대상에서 7개, 계간지 시간에서 7개 등 총 21개 건축물을 선별하여 2차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2차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지역성을 내포한 점이 우수하게 인정되어 수상 또는 전문지 게재된 건축물 10개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건축물의 개요는 Table 1과 같다.

연구 방법은 연구대상 건축물의 건축가 인터뷰, 건축 저널이나 논문의 게재 내용을 일차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답사와 현장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건축가들이 제주 건축에 구현하고자 했던 지역성을 분석하고 그 구현방식을 정리하였다.

Table 1. Jeju Architecture of Study

Architecture	Architect	Building Scope	Built Year	Reference
Jeju Stone House (Floating L)	Cho Jaewon	1F	2010	Jeju Architectural culture Grand prize
It's Sea Jeju	Park Hyunmo	B1/2F	2014	Jeju Architectural culture Grand prize
SM1 House	Sun Eunsoo	2F	2013	Quarterly Journal Jigan
Y House	Yang Gun	1F	2015	Quarterly Journal Jigan
La Villa	Lee Dong-gi	2F	2016	Quarterly Journal Jigan
Jeju Stay Biuda	Bang Chulrin	B1/2F	2013	Quarterly Journal Jigan
Jeju Horse Museum	Yun Woongwon	2F	2012	Quarterly Journal Jigan
CJ Nine Bridges The Forum	Lim Youngwhan	B2/1F	2013	Journal SPACE
Jeju Bayhill Pool & Villa	Kim Dongjin	B2/4F	2014	Journal SPACE
L.O.G (Lay On the Ground)	Lee Minsoo Ahn Keehyun	2F	2016	Journal SPACE

2. 건축가 21인의 제주 지역성 논의

제주 지역 건축가들이나 제주에 건축 작품을 남기는 건축가들에게 지역성은 늘 고민하는 주제이며, 지역성을 가진 건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이들에게는 무언의 책임감과 같다. 이러한 건축가들에게 있어 자신이 생각하는 제주의 지역성은 무엇인지 대해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역 건축 잡지 ‘시간’에서 마련하였다.

2014년 가을호(3호) 시간에서는 제주에서 터를 잡고 꾸준히 활동해온 지역 건축가 14명과 제주에서 작품설계 경력이 있는 도외 건축가 6명에게 제주의 지역성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잡지에 수록했다. 잡지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도내외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제주의 지역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

첫째, 제주의 역사, 문화, 사회 및 제주민의 삶과 정신 등 제주 고유의 정체성을 건축에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로 주로 제주 전통 민가의 재해석을 다룬다. 제주 전통 민가의 건축양식이나 의미를 재해석하여 자신의 건축에 담은 작업을 지역성의 표현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양건, 선은수 등).

둘째, 제주의 자연과 풍경의 존중이다. 제주의 고유한 경관 자원인 바다, 오름, 땅의 지문 등과 제주 고유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자원인 잣담, 돌담, 굴 창고 등을 자신의 건축에 담고자 한 경우이다(박현모, 이동기, 방철린, 윤용원 등).

3. 제주 현대건축과 지역성의 구현 방식

연구대상인 10개 건축작품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건축가들의 지역성 논의 중 크게 두 가지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는 제주 고유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제주 전통 민가의 고유성을 재해석하는 것으로, 제주 민가가 가진 공간, 배치 특성을 자신의 건축에 담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올레를 포함한 마을 공간구성의 특성이나 현무암 돌담과 같은 제주만의 재료 또한 지역성의 구현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는 제주 고유의 자연과 경관 그리고 풍경을 존중하여 이를 자신의 건축에 담아내는 것으로,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조망이 가능한 바다라는 특수한 자연경관, 오름과 같은 화산섬만의 특별한 경관 요소, 잣담, 돌담, 굴 창고 등 제주만의 풍경을 만드는 요소를 자신의 건축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3.1 제주 전통 민가의 재해석을 통한 지역성의 구현

제주지역 건축가 양건은 제주 민가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의 현대적 변용을 통해 제주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건축가이다. 2006년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작품전에서 ‘경계’를 주제로 한 제주 민가의 해석과 이를 적용한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였다.



Fig. 1. Y House, Yang Gun, 2015

양건이 설계한 Fig. 1의 Y 주택의 경우 제주 마을에서 민가의 입구로 이어지는 골목길인 ‘올레’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담겨있다. 서울대 건축학과 백진 교수는 Y 주택에 대한 비평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Y씨 주택이 관심을 표현하는 대상은 바로 길이다. 본래 제주도는 ‘올레’로 불리는 골목길이 큰길부터 마을의 안쪽에 이르기까지 굽이굽이 뻗어 들어가는 모습이 특색이다..Y씨 주택은 이러한 올레길의 존재를 의식하며 그 관계성을 놓지 않으려는 뜻을 분명히 한다”[2]백진 교수의 언급처럼 건축가 양건이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성은 제주 전통 마을과 민가의 요소를 재해석하고 이를 건축에 적용하는데 기반하고 있다.

제주 전통 민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주지역 건축가는 선은수이다. 선은수는 Fig. 2의 SM1 주택 설계 초기부터 제주 민가의 재해석을 주택의 기본 개념으로 설정했다. SM1 주택은 제주 민가를 재해석한 우수한 작품으로 인정받아 2013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제주 전통가옥의 공간배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재해석하여 앞마당, 안뒤마당, 풍낭마당, 정낭마당, 송이마당, 놀마당으로 공간의 영역을 벽을 통해서 구분”[3]하고 이를 주택에 적용하였다. SM1 주택의 개념부터 계획까지 제주 전통 민가의 배치를 재해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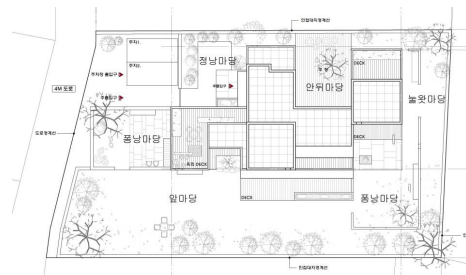


Fig. 2. SM1 House Layout Plan, Sun Eunsoo, 20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 전통 민가의 재해석과 민가와 마을 구성 요소의 현대적 적용은 제주의 지역성을 건축으로 구현하는 매우 강력한 방식이다. 양건, 선은수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의 일부 건축가들도 이러한 구현방식을 통해 제주성을 건축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4]. 이러한 점에서 제주 전통 민가의 재해석을 통한 지역성의 구현은 해석학적 특성에 기반한 지역성, 즉 ‘해석학적 지역성’이라 할 수 있다.

3.2 제주 경관과 풍경의 존중을 통한 지역성의 구현

제주의 지역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내 건축가들은 대부분 제주의 경관과 풍경을 존중하여 자신의 건축에 담아내는 작업으로 지역성을 표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건축가들이 이 구현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주가 가진 독특한 자연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자 유일한 화산섬이며,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 경관이 잘 보존되어 왔다는 점이 건축가들에게는 매력적인 건축요소이면서 동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제주의 경관과 풍경을 통한 지역성의 구현방식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는 제주의 경관이나 풍경요소를 그대로 건축에 차용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경관이나 풍경을 존중하여 건축설계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3.2.1 제주 경관과 풍경요소의 건축적 차용

제주 경관과 풍경요소를 건축적으로 차용한 사례는 윤웅원의 ‘제주 조랑말 박물관’, 방철린의 ‘제주 스테이 비우다’, 조재원의 ‘제주 돌집’, 이동기의 ‘라빌라’이다.



Fig. 3. Jeju Horse Museum, Yun Woongwon, 2012

Fig. 3의 윤웅원의 제주 조랑말 박물관의 경우는 제주의 기생 화산인 오름의 형태를 그대로 건축형태로 차용함으로써 지역성을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계획은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오름(작은 화산 언덕)들에 영향을 받았다. 넓게 펼쳐진 가시리 지역의 초지에 존재하는 오름들에 올라가 보면 높이에 의한 공간적 경험을 가질 수 있다...이런 공간적 경험이 우리가 ‘아주 작은 오름’이라고 이름 지은 박물관을 계획하게 했다”[5]. 이러한 계획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박물관의 원형 매스는 제주 경관 요소인 오름 형태를 그대로 차용한 결과였다.

Fig. 4의 제주 스테이 비우다는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요소인 돌담과 굴 창고에서 건축형태를 차용했다. “제주 스테이 비우다의 설계는 삼다도의 요소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람, 돌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첫 주제이다.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담 속에는 제주도 민들의 지혜가 숨어있다...두 번째 주제는 제주도 굴 농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굴 창고에서 찾는다”[6]는 방철린의 언급처럼 펜션인 제주 스테이 비우다는 제주의 돌담과 굴 창고가 모티브가 되어 만들어졌다.



Fig. 4. Jeju Stay Biuda, Bang Chulrin, 2013



Fig. 5. La Villa, Lee Donggi, 2016

이동기는 “제주에서는 주변 경관요소에 어떤 건축물을 공간적 구성에 의하여 재료, 색채를 표현함에 따라 문화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7]고 언급하면서, Fig. 5의 라빌라 재료에 송이로 만든 송이벽돌, 현무암 돌담, 제주 민가의 박공지붕 형태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역성을 구현하고자했음을 명확히 했다.



Fig. 6. Jeju Stone House, Cho Jaewon, 2010

조재원의 경우도 “현무암과 삼나무는 제주 들녘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자연요소일 것이다. 자연석을 막돌 쌓기한 정면 벽의 현무암 질감을 내부로 들여와 현관 바닥, 거실 벽난로의 뒷벽에 이르도록 했다”[8]는 언급처럼 화산섬 제주만의 재료인 현무암을 집의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의 고유성이 건축에 담기도록 했다.

조재원의 Fig. 6의 ‘제주 돌집’, 이동기의 ‘라빌라’는 화산섬이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재료, 즉 검은 현무암이나 붉은 화산석인 송이 등 제주 고유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재료들을 자신의 건축에 적용하면서 지역성을 구현한 사례이다.

3.2.2 제주 경관과 풍경요소의 건축적 존중

제주 고유의 경관이나 풍경의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경관이나 풍경요소를 존중하여 건축 설계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로 사용한 사례는 박현모의 ‘그 해(海) 제주’, 임영환의 ‘나인브릿지 더 포럼’, 김동진의 ‘제주 베이힐 풀앤빌라’, 이민수와 안기현의 ‘로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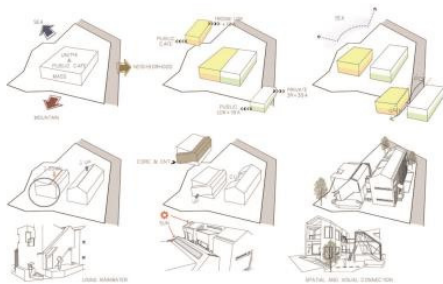


Fig. 7. Design Process of It's Sea Jeju, Park Hyunmo, 2014

제주지역 건축가 박현모의 Fig. 7의 그 해 제주는 바닷가에 면한 펜션이다. 박현모는 그 해 제주의 설계개념을 ‘풍경 속에 비워놓은 건축’으로 설정하여 설계를 진행했다. “지역성을 반영한 제주건축을 생각하며 돌과 바다, 바람을 끌어안고 극복하는 제주건축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틈을 통한 제주풍경의 새로운 해석을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9]하고자 한 것이 그 해 제주였다. 그 해 제주의 설계개념, 설계과정, 최종작품 모두 제주가 가진 풍경을 건축에 담아내고자 한 것이며, 이를 지역성을 구현하는 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다.

Fig. 8의 임영환의 나인브릿지 더 포럼은 골프 클럽하우스 내에 있는 신입사원 연수원이다. “한라산에서 먼 바다로 흐르는 지세에 직교하는 풍경의 판을 살포시 들어올리고 그 판 아래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제주 땅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인다...지형에의 순응을 통해 전통 제주 건축과 연계점을 찾을 수 있다...포럼은 그러한 새로운 지역성의 최전선에 위치한다”[10]라는 건축비평처럼, 더 포럼의 건축 형태에는 제주의 땅, 경관, 풍경에 대한 존중이 담겨있고, 이를 통해 제주의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 CJ Nine Bridges The Forum, Lim Youngwhan, 2013

Fig. 9의 김동진의 제주 베이힐 풀앤빌라는 제주에서 절경으로 꼽는 박수기정과 대평포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는 제주 올레길 8, 9코스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진이 설계개념으로 명명한 ‘자기본위적 풍광편집’이라는 용어도 이 건축이 위치한 곳의 빼어난 경관과 풍경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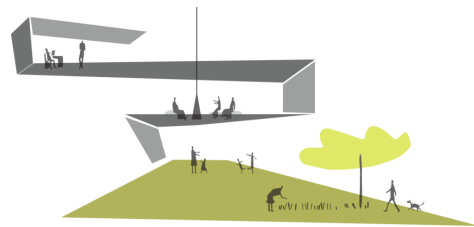


Fig. 9. Concept Sketch of Jeju Bayhill Pool & Villa, Kim Dongjin

자기본위적 풍광편집은 제주의 풍경을 통해 그곳만의 장소성을 구축하기 위해, 각 실의 수평적, 수직적 어긋남을 이용하여 그 사이의 공간과 각 실에서 풍성한 제주의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설계개념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빌라의 개념 스케치에도 명확하게 보인다.

“자연 지형에 순응하여 자리 잡은 주거의 군집은 거주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프레임을 통해 다양하게 편집되어 새로운 제주 경관을 선사한다...내부에서 보이는 벽은 창을 통한 제주의 풍경을 선택적으로 분리한다”[11]는 비평처럼 베이힐 풀엔빌라의 모든 주제는 제주의 경관과 풍경에 기반하고 있다.

Fig. 10의 이민수, 안기현의 로고는 제주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애월읍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도 건물은 시선의 장치다. 대지 내의 고저 차와 건물 사이를 조절해 모든 객실과 카페에서 제각기 다른 프레임으로 바다를 바라보게 한다.”[12]로고의 주제는 제주의 바다와 자연이며, 이를 건축으로 구현한 것이 로고라 할 수 있다.



Fig. 10. L.O.G, Lee Minsoo & Ahn Keehyun, 2016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주 경관과 풍경을 통한 지역성 구현은 그 경관과 풍경을 건축적으로 차용하거나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경관과 풍경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특성에 기반한 지역성, 즉 ‘현상학적 지역성’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제주 건축에서 다루기 힘든 주제 중 하나인 지역성을 본 연구를 포함한 일련의 연구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제주의 지역성 논의에 새로운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 기반의 첫째는 현재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제주의 지역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 결과이고, 둘째는 건축가들이 제주의 지역성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제주의 지역성은 개념적으로 정리할 때 해석학적 지역성과 현상학적 지역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석학적 지역성은 제주 전통 건축의 재해석을 통한 건축적 적용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삶과 관련된 의미를 해석하여 건축에 투영하려는 지역성이었으며, 현상학적 지역성은 제주가 가진 독특한 자연경관이나 풍경을 자신의 건축에 구현하는 지역성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주의 지역성은 크게 해석학적이거나 현상학적 특성에 기반하는 방식으로 지역성이 구현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References

- [1] Jigan, Institute of Urban Architecture Culture Heritage, vol. Autumn, no. 3, pp. 8-49, 2014.
- [2] Jigan, Institute of Urban Architecture Culture Heritage, vol. Spring, no. 5, p. 73, 2015.
- [3] Jigan, Institute of Urban Architecture Culture Heritage, vol. Autumn, no. 3, p. 26, 2014.
- [4] Jigan, Institute of Urban Architecture Culture Heritage, vol. Autumn, no. 3, pp. 10-18, 2014.
- [5] <http://blog.naver.com/designwhoswho/221088866386>
- [6] Jigan, Institute of Urban Architecture Culture Heritage, vol. Autumn, no. 3, p. 40, 2014.
- [7] Jigan, Institute of Urban Architecture Culture Heritage, vol. Autumn, no. 3, pp. 30-31, 2014.
- [8] SPACE, Space Magazine, vol. June, no. 523, p.29, 2011.
- [9] Jigan, Institute of Urban Architecture Culture Heritage, vol. Autumn, no. 3, pp. 22-23, 2014.
- [10] SPACE, Space Magazine, vol. Spring, no. 556, p.79, 2014.
- [11] SPACE, Space Magazine, vol. April, no. 557, p.88, 2014.
- [12] SPACE, Space Magazine, vol. August, no. 585, p.95, 2016.

김형준(Hyoung-Jun Kim)

[종신회원]



-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건축사, 건축론, 건축설계, 건축교육론